

# 중국어 V+掉, A+掉 구조 중 결과보어 掉的 상 자질 증한 대조연구

한 경 숙\*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결과보어 구조 'V+掉'와 'A+掉'의 예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掉'의 상 자질을 증한대조 분석하였다. 상의 분류는 Comrie(1978)의 상 분류를 따르고, '완결상'의 하위 범주에는 '완료상'이 있고, 완료상의 하위 범주에 '성사상'과 '종결상'을 설정하여 'V+掉'와 'A+掉' 구조 중 '掉'의 '문법상'과 '어휘상' 자질을 모두 분석하였다. 우선 孙凡(2012)이 제시한 판별기준에 따라 결과보어 '掉'가 보유하고 있는 상이 문법상인지 아니면 어휘상인지를 고찰하였고, 술어 동사의 의미자질과 의미구조도 고찰하였다. 술어 동사의 자질이 결과보어의 상 자질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결과보어 '掉'는 '助詞로 虛化되지 못한 결과보어'인 '掉<sub>1</sub>'과 '助詞로 虛화된 결과보어'인 '掉<sub>2</sub>'로 나눌 수 있다. '掉<sub>1</sub>'은 동사의 원형 의미를 보유하고 있기에 '어휘상'을 구현하고 있고 '掉<sub>2</sub>'는 이미 문법화가 많이 이루어져 구문에서 助詞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문법상'을 구현하고 있다. 상 자질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통사구조를 통하여 구현되기에 본 논문은 ① 'V+掉+O', ② 'V+掉', ③ 'V+掉+Par',<sup>1)</sup> ④ 'V+掉, +Sen' 등 통사구조를 통하여 동사술어문 중의 '掉'의 상 자질을 증한대조 분석하였다. 형용사술어문 중의 '掉'는 ① 'A+掉+O', ② 'A+掉', ③ 'A+掉+Par' 등 통사구조를 통하여 증한대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휘상' 특징을 나타내는 '掉<sub>1</sub>'은 [+동태성], [+종결성], [-순간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 등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고, '문법상' 특징을 나타내는 '掉<sub>2</sub>'는 술어 동사의 '종결상', '완결상', '성사상' 등을 구현하였다. 즉 '掉<sub>2</sub>'는 술어 동사의 바로 뒤에 출현하여 助詞로의 문법화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掉<sub>1</sub>'에 대응되는 한국어는 선어말어미인 '-었-', 보조동사인 '-어 버리다', 접미사인 '-어 뜨리다' 등으로 다양하여 술어 동사의 '과거시제', '완료상' 등을 구현해주고 있지만, '掉<sub>2</sub>'에 대응되는 한국어는 보조동사인 '-어 버리다'와 '-어 치우다'로 술어 동사의 '완료상'을 구현한다. 이처럼 증한 두 언어는 서로 다른 시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掉<sub>1</sub>, 掉<sub>2</sub>, 상 자질, 어휘상, 문법상, 완료상, 종결상, 성사상

\* 이 연구는 2019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of Dankook University in 2019.)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조교수 / hks6779@hanmail.net

1) 'Par'은 Particle word의 약자로 중국어 助詞를 일컫는 것이고, 'Sen'은 Sentence의 약자로 앞 구문에 이은 또 다른 구문을 일컫는 것이다.

## | 목 차 |

I. 서 론	III. 'A+掉' 중 '掉'의 상 자질 중한대조
II. 'V+掉' 중 '掉'의 상 자질 중한대조	IV. 결 론

## I. 서 론

본 논문은 현대중국어 述補구조인 'V(A)+掉'구조 중 '掉'의 상 자질 중한대조 분석을 통하여 중한 두 나라 언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고자 한다. 기술적 타당성과 설명적 타당성을 전제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고 더 나아가 본 논문의 고찰이 한국인의 중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언어의 중요한 요소인 시간은 시제, 상, 양상 등으로 구현되는데, 시간 자질 연구는 술어 동사를 떠나 논할 수 없지만, 구문 중에서 상 자질은 술어 동사의 시간 자질뿐만 아니라 動態助詞, 補語 그리고 주어와 부사어의 특성에 따라 시간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상에 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는 '시작'이 있기에 또한 필연적으로 '결과'나 '종결' 의미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후 언어학자들이 상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앞다투어 내놓았다. Vendler(1976)<sup>2)</sup>가 처음으로 영어의 동사를 활동, 완성, 성취, 상태 등 4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상은 언어학에서 두 가지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데, 첫째는 동사 고유의 어휘 의미로서 동사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적 특성, 즉 어휘의 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어휘상'이고, 둘째는 동사가 상 표지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문법상'인 '동작상'이다. 중국어는 굴절이 없는 고립어이고 상 표지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언어로서 '了', '着', '過'가 상 표지의 대표이고, 결과보어 '着', '掉', '上', '下' 그리고 助詞 '的' 등 상표지도 있다. Comrie(1978: 16-32)는 상을 완결상<sup>3)</sup>(perfective/聚合體), 비완결상(imperfective/非聚合體)으로 나누고, 비완결상은 습관상(habitual/習慣相), 지속상(continuous/持續相)으로 나누었다. 지속상의 하위 범주는 진행상(progressive/進行相), 비진행상(non-progressive/非進行相) 등으로 나누었다.<sup>4)</sup> 진행상이 지속상의 하위범주라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완결상은 움직임을 시작, 중간과 종결이 포함된 완전한 상황으로 상황 전체를 하나로 보여준다. 비완결상은 상황을 쪼개어 그중 한 국면만을 보여준다.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완결상, 비완결상의 상 대립이 문법화되지 않았기에 동사의 비진행형, 진행형으로 완결상과 비완결상을 구별한다.

본 논문은 원칙적으로 Comrie(1976)의 분류를 따르면서 '비진행상'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는 '완료상'의 하

2) Vendler, Zeno, 「Verbs and times」,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45쪽.

3) 완결: 「명사」완전하게 끝을 맺음. 호적상의 지위를 사수하면서……시집 선산에 뼈를 묻는 것으로 본처의 복수는 품위 있는 완결을 보게 돼 있었다. 『박완서, 미망』(2019년 8월 20일). 그러나 Comrie(1978: 16-32)의 완결상은 움직임을 시작, 중간과 종결이 포함된 완전한 상황으로 상황 전체를 하나로 보여준다.

4) Comrie, Bernard,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16-32쪽.

위 범주에 다시 ‘성사상’<sup>5)</sup>과 ‘종결상’<sup>6)</sup>을 더 설정하여 결과보어 ‘掉’의 상 자질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려고 한다. 시간은 공간을 통해야만 표현되는데 언어학의 공간은 바로 통사구조를 지칭하기에 ‘掉’의 상 자질도 통사구조를 통해 그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러 통사구조에 나타난 결과보어 ‘掉’의 의미자질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掉’의 상 자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자질 역시 대조 분석할 것이며, 중한 두 언어가 시간 표현 범주에서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결과보어 ‘掉’를 가질 수 있는 술어는 동사와 형용사 두 종류이기에 ‘V+掉’, ‘A+掉’ 두 구조 중의 ‘掉’의 의미자질을 고찰할 것이다. 중국 북경대학교 CCL 말뭉치(語料庫)에서 ‘V+掉’ 구조와 ‘A+掉’ 구조의 예문을 추출하여 성분분석법으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 II. ‘V+掉’ 중 ‘掉’의 상 자질 중한대조

### 1. 선행연구 및 ‘掉’의 의미구조

결과보어 ‘掉’에 대한 선행연구는 ‘V+掉’에서 ‘V’의 의미와 통사 그리고 ‘V’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치중되어 있다. ‘V+掉’에서 ‘掉’의 의미와 통사 그리고 ‘掉’와 기타 결과보어 ‘盡’, ‘絕’, ‘光’, ‘淨’ 등과의 비교분석도 많다. 그러나 ‘掉’의 상 자질 중한대조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周磊磊(1999)는 비동작동사가 ‘V+掉’ 구조 형성이 가능한 동사이지만, 심리동사와 判斷動詞, 存在動詞, 能願動詞, 使役動詞 등은 결과보어 ‘掉’와 결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sup>7)</sup> 본 논문의 고찰에 의하면 이런 그의 주장 역시 허점이 있다. 비동작동사 중 ‘V+掉’ 구조 형성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가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朴奎容(2000)은 결과보어 ‘掉’와의 결합 가능 여부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미자질의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소실과 [+소실하게 하대] 등 의미자질을 소유하는 변화동사나 동작동사가 ‘掉’와 결합 가능하다고 하였지만,<sup>8)</sup> 본 논문의 고찰에 의하면 이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행동사와 순간동사도 ‘掉’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房玉清(2001)은 ‘掉’가 이미 動態助詞와 흡사한 助詞로 虛化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劉焱(2007)은 ‘掉’의 虛化 과정을 묘사하면서 그 통사적 기능을 객체의 탈락, 객체의 소실, 행위의 종료, 상태의 실현으로 보았다.<sup>10)</sup> 한경숙(2018)은 결과보어 ‘掉’의 의미 확장 과정과 그 주관화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sup>11)</sup>

5) “필자는 『논어』의 이 문장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것을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성사시킴’이라는 개념에 대입시켜 ‘일을 성시킨 후에도 다른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成事相’을 설정하였다.”, 장호득, 『현대중국어 상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 2013, 4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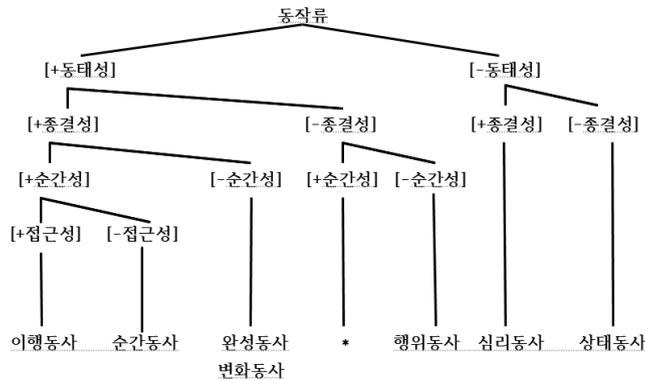
6) “종결 - 하다02(終結-)「동사」【…을】 일을 끝낸다. ≡결료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2019년 5월 30일)

7) 周磊磊, 「“V+掉”의 語法意義」, 『六安師專學報』 1, 六安: 六安師範專科學校, 1999, 61~63쪽.

8) 朴奎容, 「談“V+掉”中“掉”的意義」, 『漢語學習』 5, 延吉: 延邊大學, 2000, 12~14쪽.

9) 房玉清, 『實用漢語語法』,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2001, 148쪽.

10) 劉焱, 「“V+掉”的語義類型與“掉”的虛化」, 『中國語文』 2, 北京: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7, 133~143쪽.



〈그림 1〉 상 자질에 따른 동사의 분류

결과보어 ‘掉’는 문장 중에서 동사의 바로 뒤에 위치하여 동작의 ‘완성’과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掉’의 상 자질이 동사 ‘V’의 자질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에 본 논문은 먼저 ‘V’의 상 자질부터 고찰해 보려고 한다. 박덕유(2007)<sup>12)</sup>는 [±동태성], [±순간성], [±완결성], [±접근성] 등 상 자질 보유 여부에 따라 동사를 7부류로 나누었다. 그러나 박덕유가 설정한 ‘완결성’과 Comrie(1976)가 설정한 ‘완결성’ 개념이 같듯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에 본문은 [+동태성의 하위 범주에 [+종결성과 [-종결성을 설정하여 중국어 동사를 [±지속성], [±접근성], [±동태성], [±순간성], [±종결성] 등 자질에 따라 〈그림 1〉의 분류처럼 이행동사, 순간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행위동사, 심리동사, 상태동사 등 7가지 부류로 분류하였다.

동사 분류에서 [±지속성] 자질의 추가로 그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掉’가 술어 동사의 지속상을 구현해 줄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태성은 움직임이 있는 자질이고 움직임이 있어야 과정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동작의 전개도 가능하고 분해 역시 가능하며 동작의 내적 시간 구성도 가능해지기에 매우 중요한 상 자질이다. 이런 자질은 [+상태성]과 대립 관계를 이룬다. [+상태성은 어느 시점에서든지 같은 장면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태성] 자질은 [-상태성] 자질과 의미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동태성] 자질은 내적인 동적 과정은 있지만, 외적인 동적 과정은 없다. [+종결성은 사건이나 행위의 장면이 완료되어 완결종점에 다다를 때까지 중간에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완결종점으로 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완결종점에 도착해야 완성된다. 반면에 [-종결성은 완결종점도 없고 언제라도 계속 진행이 가능하며 또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고 완결종점으로 향하는 과정은 내포되지 않는다. [+순간성은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사건과 동작의 특징이고 시간적인 지속이 없으며 장면의 지속도 없다. [-순간성은 [+지속성]과 같은 의미이다. [+접근성은 하나의 상황 혹은 상태에서 다른 상황 혹은 상태로 접근해 가는 특징이고 진행의 이행과정은 있지만, 완료는 없다. [-접근성은 완료만 있고 이행과정은 없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어 동사를 [±지속성], [±동태성], [±순간성], [±종결성], [±접근성] 등과 같은 자질에 따라

11) 한경숙, 「중국어 掉의 의미 확장과 주관화 중한대조연구」, 『중국인문과학』 69, 중국인문학회, 2018, 81-98쪽.

12)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 서울: 제이앤씨, 2007, 128쪽.

이행동사(+순간성, [+동태성, [+종결성, [+접근성, [-지속성]), 완성동사(-순간성, [+동태성, [+종결성, [+지속성]), 순간동사(+순간성, [+동태성, [+종결성, [-접근성, [-지속성]), 변화동사(-순간성][+동태성, [+종결성, [+지속성]), 행위동사(-순간성][+동태성, [-종결성, [+지속성]), 심리동사(+완결성, [-동태성]), 상태동사(-완결성, [-동태성]) 등 동작류로 분류하였다. 이런 동작류가 결과보어 ‘掉’와 결합할 수 있는지 먼저 고찰하였고, ‘掉’의 의미구조는 [+V(이행)+掉], [+V(순간)+掉], [+V(완성)+掉], [+V(변화)+掉], [+V(행위)+掉] 등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다음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1> 상 자질에 따른 동사의 분류 및 ‘掉’의 의미구조

	동사 분류	상 자질	동사	V+掉
1	이행동사	+순간성, +동태성, +완결성, +접근성, -지속성	淹, 停止, 丢, 撞, 到達	+
2	순간동사	+순간성, +동태성, +완결성, -접근성, -지속성	踢, 跳, 死, 眨, 打, 咳嗽,	+
3	완성동사	-순간성, +동태성, +완결성, -접근성, +지속성	戴, 穿, 脱, 系, 矣, 开, 扑	+
4	변화동사	-순간성, +동태성, +완결성, -접근성, +지속성	升, 变, 溢, 降, 瘦, 坏, 酸	+
5	행위동사	-순간성, +동태성, -완결성, -접근성, +지속성	叫, 给, 飞, 跑, 喝, 玩, 写,	+
6	심리동사	-순간성, +완결성, -동태성, -접근성, +지속성	感觉, 听, 尝, 希望, 看	-
7	상태동사	-순간성, -완결성, -동태성, -접근성, +지속성	有, 无, 是, 在	-

술어 동사 ‘V’와 바로 뒤에 출현하는 掉와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자. 어떤 동작류는 그 부류의 모든 동사가 다 결과보어 ‘掉’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 동사만 가능하다. 이는 술어 동사의 의미자질 그리고 ‘掉’의 의미 확장 등과 관련이 있다. 즉 비록 결과보어 ‘掉’오 그 앞에 출현하는 술어 동사 사이의 선택적 관계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掉’와 ‘술어 동사’ 사이의 선택적 관계는 ‘掉’와 ‘술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질이 서로 정합 가능한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掉’의 의미구조는 술어의 의미자질과 관계가 있다. 어떤 자질의 ‘술어 동사’가 결과보어 ‘掉’와 결합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자질의 ‘술어 동사’가 결과보어가 虛化되어 형성된 助詞 ‘掉’와 결합 가능한지는 예문 분석을 통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현대중국어에 이르러 비록 ‘掉’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 문법상 범주의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助詞로 일부 문법화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원형 의미를 보존하고 있는 동사로 남아 있는 상황도 있다. 그러므로 ‘掉’의 문법화가 ‘了’, ‘着’, ‘過’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아직 動態助詞로 온전히 발전된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문법상을 구현하는 ‘掉’를 助詞의 하위 범주인 動態助詞로 호칭하지 않고 그냥 助詞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법화 과정에 있는 현대중국어의 결과보어 ‘掉’는 문법상과 어휘상 모두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예문 분석을 통하여 이행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행위동사 등의 동사 뒤에 출현한 ‘掉’가 어떠한 종류의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중한대조 분석할 것이다.

『現代漢語詞典』(2015)의 해석에 의하면 현대중국어의 ‘掉’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① 떨어지다(落);

② 뒷처지다(落在後面); ③ 유실(遺失), 빠뜨리다(遺漏); ④ 흔들다(搖動, 擺動); ⑤ 방향을 돌리다(回, 轉); ⑥ 바꾸다(互換); ⑦ 감소하다(減少), 낮추다(降低); ⑧ 동사의 뒤에서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用在某些動詞後, 表示動作的結果) 등이 있다. 이들 의미 중 마지막 여덟 번째는 ‘掉’가 결과보어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나머지는 동사로서 ‘掉’의 의미이다. 본 논문은 동사 ‘掉’의 의미인 ①부터 ⑦까지의 의미자질을 [+소실 하나로 묶을 것이고, 술어(동사, 형용사) 뒤의 ‘掉’가 어휘상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문법상을 구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孫凡(2012)은 虛化된 結果補語의 상 자질 판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미가 虛化되어 이미 어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통사적인 기능만 갖고 있다. 술어 동사(형용사)와 결과보어 사이에는 ‘술어 동사 V(형용사 A)때문에 결과보어(X)의 결과를 가져왔다.’와 같은 인과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둘째, 구문에서 결과보어는 논항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셋째, ‘是非疑問句’의 물음에 결과보어가 직접 답을 할 수가 없다. 넷째, [+완성], [+결과] 자질 결과보어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sup>13)</sup>로 교체할 수 없다.”<sup>14)</sup> 그는 위의 기준으로 결과보어가 동사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휘가 虛化되어 통사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動態助詞로 발전하였는지 구분하였다.<sup>15)</sup> 본 논문도 그의 이런 기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기준으로 결과보어 ‘掉’가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지 않는지 먼저 판별하고, 그다음 ‘掉’를 ‘助詞로 虛化되지 못한 결과보어’와 ‘助詞로 虛化된 결과보어’ 등 두 부류로 나누어 각 부류 ‘掉’의 상 자질을 중한대조 분석해 볼 것이다. ‘掉’는 [+소실]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결과보어 ‘掉<sub>1</sub>’과 [-소실], [+완성], [+결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掉<sub>2</sub>’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이 문장 중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사적 기능이 다르기에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掉’에 대해 각각 고찰해 볼 것이다. 왜냐면 동사 뒤에 출현한 결과보어 ‘掉’의 문법화 정도에 따라 어떤 것은 아직 동사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것은 虛化가 많이 이루어져 이미 문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助詞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두 종류의 ‘掉’가 똑같은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없기에 각 종류 ‘掉’의 특징에 따라 그 상이 어휘상인지 아니면 문법상인지 먼저 분석하고, 다음 구체적인 상 자질을 중한대조 분석할 것이다.

## 2. ‘V+掉<sub>1</sub>’ 중 ‘掉<sub>1</sub>’의 상 자질 중한대조

동사와 ‘掉’의 결합 관계를 고찰한 결과에서 알다시피 ‘掉’는 그 앞 동사와의 결합 관계의 폭이 상당히 넓다. 이행동사, 순간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행위동사 등 동사들이 ‘掉’와 결합할 수 있고 심리동사와 상대

13) 孫凡(2012)의 서술은 “具有+完成, [+結果]의语义特征, 不能用“着”进行替换。”로 되어 있다. 그는 [+완성], [+結果] 자질을 가지고 있는 助詞는 지속을 나타내는 助詞인 “着”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결과, 종결 자질을 가지고 있는 助詞 “着(zhao)”와 구분하기 위하여 지속을 나타내는 助詞 “着”에도 발음을 붙여 구분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着(zhe)”로 표시하였다.

14) “1、词义已经虚化, 只表示语法意义, 不表示词汇意义, 动词(形容词)与体标记之间不能有“因V而X”的因果语义关系; 2、在句中不能指派论元; 3、不能单独对是非疑問句进行回答; 4、具有[+完成], [+結果]的语义特征, 不能用“着”进行替换.”, 孫凡, 「现代汉语结果体研究」,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吉林: 吉林大學, 2012, 35~36쪽.

15) 위의 네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부합되지 못한다면 ‘虛化된 결과보어’ 즉 助詞라고 볼 수 없다.

동사는 결합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예문 분석을 통하여 ‘掉’는 이런 동사들의 뒤에서 어떤 상 자질을 구현하는지 고찰해 보겠다. 먼저 [+소실], [+완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掉’<sup>16)</sup>의 예문들을 보겠다.

- (1) 官兵们都是小心翼翼地低头缩肩穿过一片葡萄园, 生怕在无意中**碰掉**葡萄。(장교와 사병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한 포도농장을 지나갔다. 무의식중에 포도를 떨어뜨릴까 두려웠다.)① 떨어지다(落)
- (2) 她怕我说她, 几次想把化的妆**洗掉**, 都被同学拦住了。(그녀는 나의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 몇 번이고 화장을 지워내려고 했지만, 친구들에 의해 제지당했다.)⑦ 감소하다(減少)
- (3) 你用剃刀把脸上的胡须和寒毛**刮掉**。(너 면도기로 얼굴의 수염과 솜털을 좀 깎아내라.)① 떨어지다(落)
- (4) 席棚顶也经常被风**刮掉**。(삿자리 막은 자주 바람에 의해 떨어져 버린다.)① 떨어지다(落)
- (5) 你想**打掉**胎兒? (너 낙태하려고?) ① 떨어지다(落)/③ 유실(遺失)

예문 (1)~(5)에서 술어 동사의 뒤에 위치한 결과보어 ‘掉’는 모두 목적이 이루어졌거나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결과보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형 의미인 동사의 의미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예문 (1)에서 ‘掉’는 ① 떨어지다(落)라는 원형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로 ‘장교와 사병들(官兵们)’이 ‘건드렸기(碰)’ 때문에 ‘포도(葡萄)’가 ‘떨어졌다(掉)’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掉’는 원형 동사 의미를 보유하고 있고 ‘포도(葡萄)’라는 논항도 하나 보유하고 있다. 즉 ‘碰’의 의미지향은 주어인 ‘官兵们’이고 ‘掉’의 의미지향은 목적어인 ‘葡萄’이다. 이때의 ‘掉’는 또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직접 ‘掉了’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완성], [+결과] 자질의 결과보어 ‘掉’를 대체가능하고 대체 후 ‘V着(zhe)’는 성립된다. 따라서 이때의 ‘掉’가 보유하고 있는 상은 어휘상이지 문법상은 아니다. 아직 문법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助詞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의 ‘掉’가 보유하고 있는 어휘상은 [-순간성], [+동태성], [+종결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이다.

예문 (2)의 ‘掉’는 ⑦ 감소하다(減少)라는 의미를 보유하고 있고 ‘그녀(她)’가 ‘세안하였기(洗)’에 ‘화장(化的妆)’이 ‘지워졌다(掉)’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형성된다. ‘화장(化的妆)’이 ‘지워진(掉)’ 원인은 ‘그녀(她)’가 ‘세안(洗)’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술어 동사 ‘洗’는 ‘화장(化的妆)’이라는 논항이 하나 있다. 즉 술어 동사 ‘洗’의 의미지향은 주어인 ‘她’이고 결과보어 ‘掉’의 논항 즉 의미지향은 목적어인 ‘化的妆’이다. 동사의 원형 의미를 보유하고 있고 논항도 보유하고 있으며 술어 동사와 결과보어 사이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掉’가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도 있고 [+완성], [+결과] 자질의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가능 하기에 이때의 결과보어 ‘掉’가 보유하고 있는 상은 어휘상이지 문법상은 아니다. 이때의 결과보어 ‘掉’는 아직 문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助詞로 발전하지 못했다. ‘掉’가 술어 동사 ‘洗’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어휘상은 [-순간성], [+동태성], [+종결성], [-접근성],

16) ‘掉’은 술어(V/A) 뒤에 위치하여 어휘상을 구현하는 동사 掉이고, ‘掉’는 술어(V/A) 뒤에 위치하는 문법상을 구현하는 助詞 掉이다.

[지속성], [+결과성]이다.

예문 (3), (4)는 술어 동사가 모두 ‘刮掉’이지만, 두 문장의 술어 동사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你用剃刀把脸上的胡须和寒毛刮掉’에서 ‘刮’는 ‘긁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이지만, ‘席棚顶也经常被风刮掉’에서 ‘刮’는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이다. 이렇듯 ‘掉’는 자동사든 타동사든 이들 모두 ‘掉’와 그 앞의 술어 동사와 결합하여 결과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예문 (3), (4)에서 ‘掉’는 여전히 동사의 원형 의미인 ① 떨어지다(落)라는 동사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술어와 결과보어 사이에는 ‘V때문에 R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예문 (3)에서 ‘掉’는 ‘胡须和寒毛’라는 논항을 보유하고 있고, (4)에서 ‘掉’는 ‘席棚顶’이라는 논항을 보유하고 있고 결과보어가 ‘是非疑問句’의 물음에 대해 단독으로 답할 수 있다. [+완성], [+결과] 자질의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의 교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예문 (3), (4)에서 ‘掉’는 아직 助詞로 발전하지 못했기에 문법상은 가지지 못하고 어휘상만 보유하고 있다. 그 상 자질은 [-순간성], [+동태성], [+중결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이다.

예문 (1)~(5)에서 결과보어 ‘掉<sub>1</sub>’ 모두 동사로서의 원형 의미자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원형 의미자질들은 다시 [+소실] 자질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즉 [+소실]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보어 ‘掉<sub>1</sub>’은 [+소실]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이행동사, 순간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행위동사 뒤에 위치할 때 문법상을 나타낼 수 없고 어휘상만을 나타낼 수 있다. ‘掉<sub>1</sub>’은 우리말의 ‘-어 뜨리다’, ‘-어 버리다’, ‘-어 치우다’ 등으로 대응될 수 있는데, ‘-어 뜨리다’는 ‘접미사’로 상 자질을 나타낼 수 없고 ‘-어 버리다’, ‘-어 치우다’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 3. ‘V+掉<sub>2</sub>’ 중 ‘掉<sub>2</sub>’의 상 자질 중한대조

결과보어 위치의 ‘掉’가 [-소실], [+완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고 동사의 원형 의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문장 중에서 논항구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이행동사, 순간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행위동사 뒤에 위치하면 그 동사로서의 원형 의미는 사라지고 통사적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런 虛化된 ‘掉<sub>2</sub>’는 이미 助詞에 가깝고 구문 술어 동사의 문법상을 구현해준다. 예문 분석을 통하여 [-소실], [+완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助詞 ‘掉<sub>2</sub>’의 상 자질을 분석해볼 것이다. 의미자질은 통사구조를 통하여 구현되기에 ‘V+掉<sub>2</sub>’ 중 ‘掉<sub>2</sub>’의 상 자질을 고찰하기 위하여 ① ‘V+掉<sub>2</sub>+O’, ② ‘V+掉<sub>2</sub>’, ③ ‘V+掉<sub>2</sub>+Par’,<sup>17)</sup> ④ ‘V+掉<sub>2</sub>, +Sen’ 등 통사구조를 고찰한다.

#### (1) ‘V+掉<sub>2</sub>+O’ 구조

‘V+掉<sub>2</sub>+O’ 구조인 다음 예문들을 보겠다.

(6) 但是如果你想成为投资银行家, 这个习惯必须改掉。”(그러나 만약 성공한 투자은행가가 되려면

17) Par’은 Particle word의 약자로 중국어 助詞를 일컫는 것이고, ‘Sen’은 Sentence의 약자로 앞 구문에 이은 또 다른 구문을 일컫는 것이다.

- 너는 이런 나쁜 습관을 반드시 고쳐버려야 한다.)(+동사 연결 구성, [+부정적
- (7) “你这样画，不怕掉脑袋吗？还不赶快跟我把毛泽东**拿掉**！”(이렇게 그리다니? 머리 잘리는 것이 두렵지 않아? 나와 같이 빨리 이 모택동의 초상화를 치워버리자!)(+동사 연결 구성, [+부정적
- (8) 他很卖劲地**办掉**一切交给他的事，使上司们对他的想象力和办理一切工作的敏捷感到惊奇。(그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치웠기에 상사들은 그의 상상력과 빠른 일 처리 속도에 감탄하였다.)(+의도적 행위 완료, [+시원함
- (9) 这叫作以攻为守，先**打掉**努尔哈赤的锐气，咱们以后还要瞅机会，再去袭击它。”(이것은 공격을 최선의 수비로 삼는다는 뜻이다. 먼저 누르하치의 예봉을 눌러버리고 향후 기회를 봐서 다시 기습공격을 할 것이다.)(+의도적 행위 완료, [+시원함

예문 (6)은 결과보어 ‘掉’가 술어 동사 ‘改’의 뒤에 출현하는 상황이다. ‘改’는 [+동태성], [+종결성], [-순간성], [-소실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동사이다. 구문 중에서 ‘掉’는 동사로서의 원형 의미는 사라졌고 통사적 기능만을 하고 있다. 술어 동사 ‘改’ 뒤에는 비록 목적어가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목적어 ‘习惯’이 술어의 앞에 전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가끔은 목적어를 술어의 앞으로 前置하기도 한다. 따라서 술어 동사 ‘改’는 ‘你’와 ‘习惯’이라는 두 개의 논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掉’는 논항구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술어 동사 ‘改’의 의미지향은 주어인 ‘你’와 목적어인 ‘习惯’이지만, ‘掉’의 의미지향은 술어 동사이고 문장 중에서 통사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술어 동사 ‘改’와 결과보어 ‘掉’ 사이에는 ‘改’ 때문에 ‘掉’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掉’가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고 [+완성], [+결과] 자질의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 불가하다. 따라서 이때의 ‘掉’는 문법상을 보유하고 있다. [+동태성], [+종결성], [-순간성], [-소실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동사 ‘改’는 동작의 내적 구성시간이 있고 동작의 전 과정이 분해되므로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但是如果你想成为投资银行家，这个习惯必须**改掉**。”는 복문으로 앞 구문은 가정을 나타내고 뒤의 구문은 앞의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런 논리적 관계 속에서 ‘改掉’는 주체인 ‘你’가 반드시 종결해야 할 행동을 의미한다. 앞의 구문은 가정을 나타냈기에 전체구문은 미래시제이다. [-소실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는 ‘掉’는 술어 동사의 ‘완료상’의 하위 범주 즉 ‘종결상’을 구현해주고 있다. 술어 동사의 앞에 나타난 부사어 ‘必须’는 동사의 필요성을 피력해주는 작용을 한다. 예문 (7)의 결과보어 ‘掉’ 역시 [+동태성], [+종결성], [-순간성], [-소실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동사 ‘拿’의 뒤에서 술어 동사의 ‘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종결상’을 구현해주고 있다. 예문 (6), (7)의 문장 구조는 매우 흡사하다. 단 (6)은 목적어가 전치될 때 아무런 전치사도 동반되지 않았지만, 예문 (7)은 목적어가 전치사 ‘把’를 동반하면서 술어 동사의 앞에 전치된 것이다. 예문 (6)에서 술어 동사 앞에 ‘但是如果你想成为投资银行家’, ‘必须’와 같은 논리적 제약을 위치시켜 정보 전달의 완성도와 안정감을 주었다. 예문 (7)에서는 술어 동사 앞에 ‘你这样画，不怕掉脑袋吗?’라는 논리적 제약을 위치시키고 ‘赶快’라는 시간적 제약 ‘跟我’라는 상황적 제약을 위치시켜 정보 전달의 완성도와 안정감을 주었다. 목적어 전치에 관한 사항은 후속

연구에서 더 깊이 있는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 ‘掉<sub>2</sub>’는 우리말의 보조동사 ‘-어 버리다’ 혹은 ‘-어 치우다’와 대응되는데 한국어의 ‘-어 버리다’ 혹은 ‘-어 치우다’는 ‘완료상’이다.

예문 (8), (9)는 예문 (6), (7)과 다르게 목적어가 술어의 뒤에 위치하는 상황이다. 예문 (8)에서 술어 동사 ‘办’은 ‘他’와 ‘事’라는 두 개의 논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掉’는 논항구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술어 동사 ‘办’의 의미지향은 주어인 ‘你’와 목적어인 ‘习惯’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掉’의 의미지향은 술어 동사이고 통사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술어 동사 ‘办’과 결과보어 ‘掉’ 사이에는 ‘办’ 때문에 ‘掉’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掉’가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고 [+완성], [+결과] 자질의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 불가하다. 따라서 이때의 ‘掉’는 문법상을 보유하고 있다. [+동태성], [+종결성], [-순간성], [-소실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동사 ‘办’은 동작의 내적 구성시간이 있고 동작의 전 과정이 분해되므로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他很卖劲地办掉一切交给他办的事, 使上司们对他的想象力和办理一切工作的敏捷感到惊奇。”를 살펴보면, 앞뒤 구문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이런 논리적 관계 속에서 ‘办掉’는 주체인 ‘他’가 반드시 종결해야 할 행동을 의미한다. [-소실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동사 뒤에 위치한 ‘掉’는 술어 동사의 ‘완료상’의 하위 범주 즉 ‘종결상’을 구현해주고 있다. ‘掉<sub>2</sub>’는 우리말의 보조동사 ‘-어 버리다’ 혹은 ‘-어 치우다’와 대응되는데 한국어의 ‘-어 버리다’ 혹은 ‘-어 치우다’는 ‘완료상’이다.

## (2) ‘V+掉<sub>2</sub>’ 구조

다음은 ‘V+掉<sub>2</sub>’ 구조의 예문을 고찰해 보겠다.

- (10) 恩仇的话, 恚气恚死人了, 会得胃癌**死掉**. (원한이라는 단어와 화는 죽음을 불러올 수 있어. 위암 걸려 죽어버릴 수도 있다.)[-의도적 행위 완료, [+부정적]
- (11) 我强撑着, 不让自己**瘫掉或垮掉**. (나는 자신이 미쳐버리거나 무너져버리지 않게 하려고 억지로 버티고 있었다.)[-의도적 행위 완료, [+부정적]

예문 (10)은 예문 (6), (7)과 다르게 술어 동사가 순간동사인 ‘死’이다. ‘死’는 [+동태성], [+종결성], [+순간성], [-접근성], [+소실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死’는 생략된 논항구조 ‘人’이 하나 존재하지만, 술어 동사 ‘死’의 바로 뒤에 나타난 ‘掉’는 논항구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掉’는 동사의 원형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으며 [+완성], [+결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掉’는 그 앞에 출현한 술어 동사 ‘死’의 상 자질을 구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순간동사 ‘死’ 뒤에 출현하는 ‘掉’는 술어 동사의 ‘완결<sup>18)</sup>상’을 구현해주고 있다. [+동태성], [+종결성], [+순간성], [-접근성], [+소실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死’가 움직임의 시작, 중간, 종결이 모두 포함된 완전한 상황 전체를 하나로 보여주는 동작류이기 때문이다. 술어 동사의 앞

18) 완결상은 움직임의 시작, 중간과 종결이 포함된 완전한 상황으로 상황 전체를 하나로 보여준다.

에 ‘**恩仇的话, 怄气怄死人了**’라는 논리적 제약을 위치시키고 ‘**会**’라는 가능성과 ‘**得胃癌**’라는 논리적 제약 등을 위치시켜 정보 전달의 완성도와 안정감을 주고 있다.

예문 (11)의 ‘**疯掉**’와 ‘**垮掉**’에서 술어 동사 ‘**疯**([+동태성], [-순간성], [-종결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과 ‘**垮**([+동태성], [-순간성], [+종결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는 행위동사이기도 하고 자동사이기도 하다. 이들은 문장 중에서 논항 하나씩만 보유하고 있다. 이들 뒤에 출현하는 ‘**掉**’는 논항구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형동사의 의미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문장 중에서 문법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에 이미 助詞로 허화된 상황이다. ‘**掉**’는 동사의 원형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으며 [+완성], [+결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 불가하다. 술어 동사 ‘**疯**’과 ‘**垮**’는 동작의 내적 구성시간이 있고 동작의 전 과정이 분해되므로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掉**’는 술어 동사의 ‘**완료상**’의 하위 범주 즉 ‘**종결상**’을 구현해주고 있다.

예문 (6)~(7), (10)~(11)를 다시 살펴보면 동작류가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死掉**’를 ‘**垮掉**’로 ‘**出生掉**’를 ‘**堅持掉**’로 바꿔보면 비문이다. 이는 虛化된 ‘**掉**’가 상 자질 외에 [+부정적] 의미자질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助詞로 虛化된 ‘**掉**’에 [+부정적] 의미자질이 있기에 [-부정적]인 술어 동사 **出生, 堅持**와는 결합할 수 없다. 그리고 예문 (6), (7)의 ‘**掉**’가 [+동사 연결 구성] 의미도 있고 예문 (10), (11)에서 ‘**掉**’는 [-의도적 행위 완료] 의미도 있으며 예문 (8), (9)에서 ‘**掉**’는 [+시원함] 의미자질도 보유하고 있다. 술어 동사와 ‘**掉**’ 사이의 구성에서 한 번 버리면 다시 원위치시킬 수 없기에 ‘**掉**’는 [+환원 불가능]이라는 자질도 보유하고 있는데, ‘**掉**’의 [+환원 불가능]이라는 자질이 [+의도적 행위 완료]와 [-의도적 행위 완료]로 표현되기도 한다. 술어 동사가 주어의 의도적 행위완료인 상황이라면 시원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 [+시원함] 자질도 가지게 되었다. 반대로 술어 동사가 주어의 비의도적 행위완료인 상황이라면 그 행위 완료의 환원 불가능 특징 때문에 [+아쉬움] 자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아쉬움] 자질은 虛化된 ‘**掉**’가 상 자질 외에 [+부정적] 자질을 가지게 한다. 虛化된 ‘**掉**’는 ‘**掉<sub>2</sub>**’로 우리말의 보조동사 ‘-어 버리다’ 혹은 ‘-어 치우다’와 대응되는데 한국어의 ‘-어 버리다’ 혹은 ‘-어 치우다’는 ‘**완료상**’이다.

### (3) ‘V+掉<sub>2</sub>+Par’ 구조

다음은 ‘**掉**’ 뒤에 助詞를 동반한 구조를 고찰해 볼 것이다.

- (12) 雪峰禅师又打, 他又**跑掉了**。(설봉 스님이 그를 또 때렸기에 그는 다시 달아나 버렸다。)[+의도적 행위 완료, [+부정적]
- (13) 各种英语四六级题目精选, 看得我直接**崩溃掉了**。(각종 영어 시험 4~6급의 정선된 제목을 보고 나는 그저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다。)[+의도적 행위 완료, [+부정적]
- (14) 有人把蛋糕**吃掉了**。(누가 케이크를 먹어 버렸다。)[+의도적 행위 완료, [+부정적]

위의 예문 (12)는 ‘**掉**’의 뒤에 助詞 ‘**了**’가 나타난 상황이다. 술어 동사 ‘**跑**’는 [+동태성], [+종결성], [-순간

성, [-소실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동사다. 술어 동사 뒤의 ‘掉’는 이미 원형 동사의 의미가 사라졌고, 논항구조도 존재하지 않으며 ‘跑’ 때문에 ‘掉’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논리적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掉’는 동사의 원형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으며 [+완성], [+결과] 자질의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 불가하다. 따라서 ‘掉’는 구문 중에서 통사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助詞로 이미 문법화되었다. 그 뒤에 나타난 ‘掉’는 [-소실], [+완성], [+결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즉 ‘완료상’의 하위 범주 즉 ‘중결상’을 보유하고 있다. ‘掉’의 바로 뒤에 나타난 助詞 ‘了’가 어떤 助詞인지 궁금하다. 이때 ‘了’의 의미지향은 ‘他又跑掉’라는 문장 전치이지 술어 동사가 아니기에 助詞 ‘了’는 상 자질을 구현하는 動態助詞 ‘了<sub>1</sub>’이 아니고, 시제 범주의 하위 범주인 ‘과거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동시에 문장 변화의 語氣를 나타내주는 語氣助詞인 ‘了<sub>2</sub>’이다. 즉 ‘了<sub>2</sub>’가 나타남으로써 구문의 시제가 과거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掉’는 우리말의 보조동사 ‘-어 버리다’와 대응이 되는데, 한국어에서 ‘-어 버리다’<sup>19)</sup>는 ‘완료상’이고 중국어의 시제 겸 語氣助詞 ‘了<sub>2</sub>’는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었-’과 대응되는데 우리말에서 선어말어미 ‘-었-’은 ‘과거시제’를 구현한다.

#### (4) ‘V+掉<sub>2</sub>+Sen’ 구조

‘V+掉, +Sen’구조에서 ‘Sen’은 앞 구문에 이은 후속 구문이다. 즉 ‘掉’의 뒤에 이어서 다른 한 구문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다음 예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 (15) 人随着生命的纷驰, 顺着意念的造作, 天天在浮动之中把这些化掉, 就静下来了。(사람들이 생명이 따라 생각의 흐름에 따라 매일매일 움직임 속에서 이것들을 녹여 버린다면 바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의도적 행위 완료], [-부정적]

예문 (15)에서 술어 동사 ‘化’는 [+동태성], [+중결성], [-순간성], [-소실성]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동사이다. 술어 동사 뒤의 ‘掉’는 이미 원형 동사의 의미가 사라졌고, 논항구조도 존재하지 않으며 ‘化’ 때문에 ‘掉’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掉’는 동사의 원형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으며 [+완성], [+결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 불가하다. ‘掉’는 동사 원형 의미가 사라졌고 구문 중에서 통사적 기능만을 하고 있기에 이미 助詞로 문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15)에서 ‘掉’ 앞의 동사 ‘化’는 행위동사이고 타동사이다. ‘化’의 목적어는 전치사 ‘把’에 의하여 ‘把这些’라는 전치사구 형식으로 술어 동사의 앞으로 전치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就静下来了’가 출현하면서 ‘化’라는 동작의 끝난 후 이어지는 결과로 다음 동작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掉’는 ‘化’라는 동작이 성사된 후 후속으로 이어지는 동작, 상태가 ‘静下来’의 단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기대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掉’는 동사 ‘化’의 ‘완료상’의 하위범주 즉 ‘成事相’을 구현해주고 있다. 즉 문장 중 ‘化’라는 동작이 일단락되면서 그 뒤에 다른 한 동작인 ‘静下来’가 이

19)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서울: 태학사, 2009, 295쪽.

어지게 그 가능성이 열려있었기에 다른 동작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語氣助詞 ‘了’에 의하여 끝맺음 되었다. 만약 이때 ‘就静下来了’라는 구문이 없이 ‘化掉’에서 문장 전체가 끝났다면 어떤 특정 문맥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天天在浮动之中把这些化掉’는 원어민의 시각에서는 좀 어색한 문장이 된다. 술어 동사 ‘化’의 앞에 시간 의미의 ‘天天’과 ‘在浮动之中’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술어의 앞에 시간부사 ‘天天’을 위치시켜 시간의 개념을 묶어주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의 열림 특성을 마치게 하여 ‘化掉’가 가져다주는 정보 전달의 부족함을 보완해주었다. 그리고 ‘在浮动之中’이라는 추상적인 공간 개념의 제약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 주었다. 이때의 ‘掉’는 한국어의 보조동사 ‘-어 버리다’와 대응이 되는데 한국어의 ‘-어 버리다’는 ‘완료상’을 구현한다.

### Ⅲ. ‘A+掉’ 중 ‘掉’의 상 자질 중한대조

‘A+掉’ 중의 ‘掉’ 역시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즉 형용사 술어 뒤에도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보어 ‘掉’가 출현할 수 있다. 상 자질을 가진다는 것은 그 의미자질 중에는 시간 특징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張國憲(2006)은 ‘靜態(statics)’ 자질의 유무를 통하여 형용사를 [+靜態]와 [-靜態] 두 가지로 나누었다<sup>20)</sup>. [+靜態] 자질은 형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자질이고, 이런 형용사는 움직임의 시작과 종결이 없으므로 상 자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靜態]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형용사는 ‘動態性’ 특징을 보유하고 있기에 움직임의 과정으로 인하여 움직임의 시작과 종결, 즉 일련의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靜態] 자질 형용사는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보어 ‘掉<sub>2</sub>’와 공기할 수 있다.

#### 1. ‘A+掉<sub>1</sub>’ 중 ‘掉<sub>1</sub>’의 상 자질 중한대조

다음 예문들을 통하여 형용사 뒤에 ‘掉’가 출현하는 구조의 상 자질을 고찰해 보겠다.

(16) 刘星拿起来咬了一口, 门牙差点儿没给**酸掉**.

(유성 그것을 들고 한 입 먹었다. 너무 시어 앞니가 떨어져 버릴 뻔 했다.)

(17) 这些天, 他**瘦掉了3公斤肉**。(요 며칠 그는 몸무게가 3kg 줄었다.)

예문 (16), (17)에서 ‘酸掉’, ‘瘦掉’을 고찰해 보면, 술어 ‘酸’, ‘瘦’의 뒤에 결과보어 ‘掉’가 출현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구문에서 결과보어 ‘掉’ 모두 동사의 원형 의미를 보유하고 있고 논항구조도

20) 張國憲, 『現代漢語形容詞功能與認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6, 1~45쪽 참조.

보유하고 있다. 예문 (16)에서 ‘掉’의 목적어는 ‘门牙’이다. 즉 ‘掉’의 의미지향이 ‘门牙’이고 하나의 논항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술어 ‘시(酸)’과 결과보어 ‘떨어지다(掉)’ 사이에는 ‘시(酸)’기 때문에 ‘앞니(门牙)’가 ‘떨어졌다(掉)’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결과보어가 ‘是非疑問句’ ‘掉了嗎?’의 물음에 대한 답을 직접 할 수 있다. ‘掉’는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고 [+완성], [+결과 자질의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 불가하다. 따라서 예문 (16)에서 ‘掉’는 아직 허화되지 않은 동사 기능을 하고 있다. 이때의 ‘掉’는 ‘掉<sub>1</sub>’이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어휘상은 [+동태성], [-순간성], [+종결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이다. 예문 (16)에서 ‘掉’의 목적어는 술어의 앞에 위치하는데 그 이유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술어의 앞에 ‘没给’라는 피동형 구조를 위치시켜 앞니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주어의 ‘비의도적 행위’라는 것을 나타내고, 시간 특징이 있는 ‘差点儿’이라는 부사어를 위치시켜 정보 전달의 완성도를 한 층 더 높여주었다.

예문 (17)에서 ‘掉’의 주어는 ‘그(他)’이고 목적어는 ‘살(肉)’이다. 즉 ‘掉’의 의미지향이 ‘그(他)’와 ‘살(肉)’이고 두 개의 논항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술어 ‘줄어들다(瘦)’와 결과보어 ‘빠지다(掉)’ 사이에는 ‘줄어들었다(瘦)’기 때문에 ‘살(肉)’이 ‘빠졌다(掉)’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掉’는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고 [+완성], [+결과 자질의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예문 (16)에서 ‘掉’는 아직 허화되지 않은 동사 기능을 하고 있다. 이때의 ‘掉’는 ‘掉<sub>1</sub>’이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어휘상은 [+동태성], [-순간성], [+종결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이다. 술어의 앞에 시간 특징이 있는 ‘这些天’을 위치시켜 정보 전달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예문 (17)에서 ‘掉’는 우리말의 선어말어미 ‘-었-’에 대응되는데 한국어의 ‘-었-’은 과거시제이다.

## 2. ‘A+掉<sub>2</sub>’ 중 ‘掉<sub>2</sub>’의 상 자질 중한대조

다음 예문을 통하여 형용사 술어 뒤에 위치하여 이미 문법화가 진행되어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掉<sub>2</sub>’을 고찰해 보겠다.

(18) 我的双腿一下子**软掉**了。(나의 두 다리는 삼시간에 풀려 버렸다.)

(19) 沂蒙人几乎每年都流着眼泪, 眼睁睁地看着几百公斤的水果白白**烂掉**。(沂蒙 사람들은 거의 매년 눈물을 흘리면서 수백키로의 과일이 헛되이 썩어 버리는 것을 뻔히 쳐다만 봐야 했다.)

예문 (18), (19)에서 ‘A+掉’ 중의 ‘掉’는 예문 (16), (17)의 상황과 다르다. 예문 (18)에서 술어 ‘软’의 뒤에 출현한 결과보어 ‘掉’는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았다. 예문 (18)에서 술어의 앞에 시간 특징이 ‘一下子’라는 부사어를 위치시킴으로써 술어와의 논리적 제약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었고 문장의 정보 전달의 완성도를 높여 주었다. ‘掉’는 논항구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의미지향은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고 술어이다. 그리고 술어 ‘软’과 결과보어 ‘掉’ 사이에는 ‘软’하기 때문에 ‘掉’라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도 성립되

지 않는다. ‘掉’는 동사의 원형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으며 [+완성], [+결과] 자질의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 불가하다. 따라서 ‘掉’는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어인 ‘我的双腿’가 풀리는 과정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과정은 비록 ‘一下子’라는 부사어의 수식으로 그 시간이 매우 짧지만,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과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에 완전히 풀리는 결과에까지 이르러 종결되었음을 나타낸다. 술어의 ‘완료상’의 하위 범주 즉 ‘종결상’을 구현해주고 있다. ‘종결상’의 나타내는 ‘掉’의 뒤에 출현한 ‘了’는 구문의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동시에 구문의 변화 語氣를 나타내는 語氣助詞이다. 술어 동사의 상 자질은 ‘掉<sub>2</sub>’가 구현해주고 있다. 우리말의 ‘-어 버리다’와 대응이 되는데 한국어의 ‘-어 버리다’는 ‘완료상’이다. 예문 (19)에서 술어 ‘烂’의 뒤에 위치한 결과보어 ‘掉’는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았다. ‘掉’는 논항구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의미지향은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고 술어이다. 그리고 술어 ‘烂’과 결과보어 ‘掉’ 사이에는 ‘烂’하였기 때문에 ‘掉’라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掉’는 동사의 원형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是非疑問句’인 ‘掉了嗎?’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으며 [+완성], [+결과] 자질의 결과보어 ‘掉’를 [+지속] 자질의 상표지 ‘着(zhe)’로 대체 불가하다. 따라서 ‘掉’는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데 ‘水果白白烂掉’에서 ‘烂掉’는 주어인 ‘水果’의 상태가 싱싱한 상태에서 썩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썩어버리는 결과까지 도달하여 종결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掉’는 술어의 ‘완료상’의 하위 범주 즉 ‘종결상’을 구현해주고 있다. 우리말의 보조동사 ‘-어 버리다’와 대응이 되는데 한국어의 ‘-어 버리다’는 술어의 ‘완료상’을 구현해준다.

#### IV. 결 론

본 논문은 결과보어 구조 ‘V+掉’와 ‘A+掉’ 예문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掉’의 상 자질에 대해 중한대조 분석하였다. ‘掉’의 상 자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술어의 뒤에 출현하는 ‘掉’가 상 자질을 가질 수 있는지 고찰해봐야 한다. 본 논문은 [+동태성]의 하위 범주에 [+종결성] 자질을 설정하였고, [+동태성], [+지속성], [+순간성], [+접근성], [+종결성] 등 자질에 따라 중국어의 동사를 이행동사, 순간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행위동사, 심리동사, 상태동사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掉’가 다음과 같은 동작류의 뒤에 위치할 때 상 자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상 자질에 따른 동사의 분류 및 ‘掉’의 의미구조

	동사 분류	상 자질	동사	V+掉
1	이행동사	+순간성, +동태성, +완결성, +접근성, -지속성	淹, 停止, 丢, 撞, 到達	+
2	순간동사	+순간성, +동태성, +완결성, -접근성, -지속성	踢, 跳, 死, 眨, 打, 咳嗽,	+
3	완성동사	-순간성, +동태성, +완결성, -접근성, +지속성	戴, 穿, 脱, 系, 矣, 开, 扑	+

	동사 분류	상 자질	동사	V+掉
4	변화동사	-순간성, +동태성, +완결성, -접근성, +지속성	升, 变, 溢, 降, 瘦, 坏, 酸	+
5	행위동사	-순간성, +동태성, -완결성, -접근성, +지속성	叫, 给, 飞, 跑, 喝, 玩, 写,	+
6	심리동사	-순간성, +완결성, -동태성, -접근성, +지속성	感觉, 听, 尝, 希望, 看	-
7	상태동사	-순간성, -완결성, -동태성, -접근성, +지속성	有, 无, 是, 在	-

상의 분류는 Comrie(1976: 25)의 분류를 따르면서 완료상의 하위 범주에 ‘성사상’과 ‘종결상’을 설정하여 ‘V+掉’와 ‘A+掉’ 중 ‘掉’의 상 자질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상은 문법상과 어휘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은 ‘掉’의 문법상과 어휘상 모두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孙凡(2012)의 助詞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따라 ‘V+掉’와 ‘A+掉’ 중 ‘掉’의 조사 여부와 어떤 상 자질을 구현하고 있는지 중한대조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를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V+掉’, ‘A+掉’ 구조 중 ‘掉’의 시상 자질 중한대조

자질 구조	중국어 시상 자질						한국어 시상 자질	
	예문	표지	통사구조	상 범주	의미	동사 자질	시상 범주	표지
V+掉	① 生怕在无意中碰掉葡萄。 ② 几次想把化的妆洗掉。 ③ 席棚顶也经常被风刮掉。	掉 <sub>1</sub>	① V+掉+O ② V+掉 ③ V+掉+Par	어휘상	동사	+동태성 +종결성 -순간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	완료상 접미사	-어 내다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어 뜨리다
	① 先打掉努尔哈赤的锐气。 ② 会得胃癌死掉。 ③ 他又跑掉了。 ④ 把这些化掉,就静下来了。	掉 <sub>2</sub>	① V+掉+O ② V+掉 ③ V+掉+Par ④ V+掉, +Sen	문법상	완결상 완결상 종결상 성사상	+종결성 +결과성 +일단락	완료상	-어 버리다 -어 치우다
A+掉	① 门牙差点儿没给酸掉。 ② 他瘦掉了3公斤肉。	掉 <sub>1</sub>	① A+掉+(O) ② A+掉了	어휘상	형용사	+동태성 -순간성 +종결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	완료상 과거시제	-어 버리다 -있-
	① 水果白白烂掉。 ② 我的双腿一下子软掉了。	掉 <sub>2</sub>	① A+掉+(O) ② A+掉了	문법상	종결상 종결상	+종결성 +결과성	완료상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중국어의 결과보어 ‘掉’는 아직 동사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掉<sub>1</sub>’과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掉<sub>2</sub>’로 나눌 수 있는데, ‘掉<sub>1</sub>’은 어휘상을 구현하고 있고 ‘掉<sub>2</sub>’는 문법상을 구현하고 있다. ‘掉<sub>1</sub>’은 [+동태성], [+종결성], [-순간

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 등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고 ‘掉<sub>2</sub>’는 술어 동사의 ‘완결상’, ‘종결상’, ‘성사상’을 구현해준다. 동사 술어 뒤의 ‘掉<sub>1</sub>’에 대응되는 한국어는 보조동사인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접미사 ‘-어 프리다’, 선어말어미 ‘-었’ 등으로 다양하고, 이들은 ‘과거시제’, ‘완료상’ 등을 구현했고, ‘掉<sub>2</sub>’에 대응되는 한국어는 보조동사인 ‘-어 버리다’와 ‘-어 치우다’이고, 이들은 ‘완료상’을 구현하고 있다. 형용사 술어 뒤에 위치하고 어휘상을 구현하는 ‘掉<sub>1</sub>’은 [+동태성], [+종결성], [-순간성], [±접근성], [±지속성], [+결과성] 등 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말의 ‘-어 버리다’와 ‘-었’과 대응이 되는데, ‘-어 버리다’는 보조동사로서 술어의 ‘완료상’을 구현하고, 선어말어미 ‘-었’은 과거시제를 구현한다. 형용사 술어 뒤에 위치하고 문법상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보어 ‘掉<sub>2</sub>’는 술어의 ‘종결상’을 구현해주고 한국어의 ‘-어 버리다’와 ‘-어 치우다’에 대응된다. 우리말의 ‘-어 버리다’, ‘-어 치우다’는 보조동사로서 ‘완료상’이다. 이처럼 중한 두 나라 언어는 서로 다른 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두 나라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 〈참고문헌〉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서울: 태학사, 2009.
-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 문법론(4판)』, 서울: 박이정, 2014.
-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 서울: 제이앤씨, 2007.
-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的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 비교문화연구소, 2013.
- 한경숙, 「중국어 掉의 의미 확장과 주관화 중한대조연구」, 『중국인문과학』 69, 중국인문학회, 2018.
- 한경숙, 「‘的<sub>2</sub>’, ‘的<sub>3</sub>’과 ‘來着<sub>1</sub>’의 통사적 특징과 시간 자질 중한 대조 연구」, 『동양학』 7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8.
- 한경숙, 「중국어 부사 ‘在’, 動態助詞 ‘着’ 相 자질 중한 대조 분석」, 『동양학』 6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 朴奎容, 「談“V+掉”中“掉”的意義」, 『漢語學習』 5, 延吉: 延邊大學, 2000.
- 房玉清, 『實用漢語語法』,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2001.
- 孙凡, 「现代汉语结果体研究」,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吉林: 吉林大學, 2012.
- 劉焱, 「“V+掉”的語義類型與“掉”的虛化」, 『中國語文』 2, 北京: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2007.
- 張國憲, 『現代漢語形容詞功能與認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6.
- 周磊磊, 「“V+掉”的語法意義」, 『六安師專學報』 1, 六安: 六安師範專科學校, 1999.
-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Comrie, Bernard,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Vendler, Zeno, 「Verbs and times」,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北京大學CCL語料庫([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9년 9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0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Result Complement Diao(掉) of Temporal Sememe China and South Korea Contrast Analysis

Han, Keungshuk\*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mporal sememes of 'diao(掉)' between China and Korea. Temporal analysis is classified according to Comrie (1976: 25). This paper analyses not only 'lexical aspect' but also 'grammatical asp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analysis of 'diao(掉)', this paper adopts the criterion of 'Fang Yuqing(1981)'. Result complement 'diao(掉)' can be divided into 'diao<sub>1</sub>(掉<sub>1</sub>)', 'diao<sub>2</sub>(掉<sub>2</sub>)'. 'diao<sub>1</sub>(掉<sub>1</sub>)' has sememes of [+dynamic], [+finality], [-instantaneity], [+proximity], [+persistence], [+resultfulness]. 'diao<sub>2</sub>(掉<sub>2</sub>)' can embody the verb perfective aspect success aspect. 'diao<sub>1</sub>(掉<sub>1</sub>)' can be translated into Korean of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world'. 'diao<sub>2</sub>(掉<sub>2</sub>)' can be translated into Korean '-어 버리다', '-어 치우다' and so on are all completed aspect. So it can be seen that the understanding system of time between China and Korea is different.

**[Key Words]** diao<sub>1</sub>(掉<sub>1</sub>), diao<sub>2</sub>(掉<sub>2</sub>), aspect Sememe, lexical aspect, grammatical aspect, perfective aspect, success aspect

---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